

☞ 고려의 멸망 - 麥秀之嘆(맥수지탄), 憂國之情(우국지정), 人生無常(인생무상)

번호	본문	현대어 풀이	핵심정리
1	興亡(흥망)이 流水(유수)하니 만월대도 秋草(추초) 로다 오백 년 王業(왕업)이 牧笛(목적)에 부쳐시니 夕陽(석양)에 지나는 客(객)이 눈물겨워 흐노라	흥망이 다 운수에 매어 있으니, 고려의 궁이 있던 만월대도 시든 가을 풀뿐이구나. 오백 년 고려의 왕업은 이젠 한낱 목동이 부는 구슬픈 피리 소리여나 담겨 있으니 해질 무렵 이곳을 지나는 나그네(작자)가 눈물겨워 하노라.	주제 역사의 허무함 작가 원천석
2	오백 년 도읍지를 필마로 도라 드니 산천은 依舊(의구)되 인걸은 간 데 업다 어즈버 태평 연월이 꿈이런가 흐노라	오백 년이나 이어온 고려의 옛 도읍지에 한 필의 말을 타고 들어가니, 산천의 모습은 예나 다름없으나, 인걸은 간 데 없다. 아, 슬프다. 고려의 태평한 시절이 꿈처럼 허무하다.	주제 역사의 허무함 작가 길재
3	仙人橋(선인교) 나린 물이 紫霞洞(자하동)에 흐르르니 半千年 王業(반천년 왕업)이 물소리뿐이로다 아희야 故國興亡(고국 흥망)을 물어 무엇하리오	선인교에서 내려오는 물이 자하동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니, 오백 년이나 이어 내려온 왕업이 물소리만 남았구나. 아아, 장구한 역사를 가진 고려 왕조의 흥망을 따져 본들 무엇하겠느냐?	주제 역사의 허무함 작가 정도전
4	白雪(백설)이 즈자진 골에 구름이 머흐레라 반가운 梅花(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夕陽(석양)에 홀로 서 이서 갈곳 몰라 흐노라	흰 눈이 잦아진 골짜기에 구름이 험하구나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어 있는가? 날이 저물어 가는 석양에 홀로 서 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	주제 고려에 대한 충절 작가 이색
5	눈마즈 휘어진 덕을 뉘라서 굽다턴고 구불 節(절)이면 눈 속의 프를소냐 아마도 歲寒孤節(세한 고절)은 너뿐인가 흐노라	눈을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던가? 굽을 절개라면 눈 속에서도 푸를까? 아마도 한겨울의 추위를 이기는 높은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주제 고려에 대한 충절 작가 원천석
6	가마귀 검다흐고 白鷺(백로)야 웃지 마라 것치 거문들 속조춘 거물소냐 아마도 것 회고 속 검은손 너뿐인가 흐노라	까마귀가 겉으로 보기에 검다고, 백로야 비웃지 마라. 비록 겉이 검은들 속마음까지 검은 줄 아느냐? 사실 겉이 희면서도 속이 검은 것은 바로 네가 아니더냐?	주제 위선적 인물 풍자 작가 이직
7	이런들 엇더하며 저런들 엇더하료 萬壽山(만수산) 드령층이 열거진들 귀 엇더하료 우리도 이곳치 열거져 百年(백년)까지 누리리라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오. 만수산에 마구 뻗어난 험당굴이 서로 얹혀진들 어떠하리오. 우리도 이와 같이 어울려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주제 충신에 대한 회유 작가 이방원
8	이 몸이 주거 주거 일백 번 고쳐 주거 백골이 진토되어 녀식라도 잇고업고 님 향흔 일편 단심이야 가설 줄이 이시랴	이 몸이 죽고 또 죽어 일백 번 다시 죽어 백골(白骨)이 흙과 먼지가 되어 녀이야 있건 없건 임금님께 바치는 충성심이야 변할 리가 있으랴?	주제 고려에 대한 충절 작가 정몽주
9	가마귀 冬호는 골에 白鷺(백로)야 가지 마라 성년 가마귀 흰빛을 시울세라 淸江(청강)에 죠히 시든 몸을 더러일까가 흐노라	까마귀(간신, 소인배) 모여 다투는 곳에 백로(강직한 선비)야 가지 마라. 성이 난 까마귀들이 새하얀 너의 몸빛을 보고 시기하고 미워할 것이니 청강에서 기껏 깨끗이 씻은 너의 결백한 심신이 더럽혀질까 걱정된다.	주제 아들에 대한 모정 작가 정몽주의 어머니

☞ 계유정란 - 지조와 절개

번호	본문	현대어 풀이	핵심정리
10	간밤의 부던 바람에 눈서리 치단말가 落落長松(낙락 장송)이 다 기우러 가노미라 흐물며 못다 핀 곳이야 닐너 모습하리오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과 서리까지 쳤단 말인가. 푸르던 낙락장송이 다 쓰러져 가는구나. 하물며 다 피지 못한 꽃이야 말해서 무엇하리오.	주제 세조의 포악함 개탄 작가 유응부
11	가마괴 눈비 마자 희는 듯 검노미라 夜光明月(야광 명월)이 밤인들 어두오랴 님 向(향)흔 一片丹心(일편단심)이야 變(변)흔 줄이 이시랴	까마귀가 눈비를 맞아 희어지는 듯하나 다시 검어진다. 밤에 빛나는 밝은 달이 밤이라고 해서 어둡겠는가? 임금(단종)을 향한 굳은 충성심이야 변할 까닭이 있겠는가?	주제 지조와 절개 작가 박팽년
12	간 밤에 우던 여홀 슬피 우러 지내여다. 이제야 싱각하니 님이 우러 보내도다. 저 물이 거스리 흐르고저 나도 우러 네리랴.	지난밤에 울며 흐르던 여울, 슬프게 울면서 흘러 간다. 이제 생각하니 임(임금)이 울어 보내는 소리로구나. 저 물이 거슬러 흐르게 하고 싶다. 나도 울면서 가리랴.	주제 이별의 슬픔 작가 원호
13	房(방) 안에 췌는 燭(촉)불 놀과 離別(이별)하엿관디, 것즈로 눈물 디고 속타는 줄 모르는고. 우리도 더 燭(촉)불 갓트여 속타는 줄 모로도다	방안에 켜 있는(놓은) 촛불은 누구와 이별을 하였기에, 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속이 타 들어가는 줄을 모르는가. 저 촛불도 나와 같아서 속이 타는 줄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주제 이별의 슬픔 작가 이개
14	천 만리 머늬면 길에 고흔님 여회압고 닉 마음 둘 디 업서 님가에 안갓시니 저 물도 님 안 갓트여 우리 밤길 예넛다	천 리 만 리 머나먼 저승길에 고운 님(단종)을 영원히 사별하고 나의 슬픈 마음을 불일 데가 없어 냇가에 앉아 있으니 (흘러가는) 저 냇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며 밤길을 흘러간다.	주제 이별의 슬픔 작가 왕방연
15	首陽山(수양산) 바라보며 夷齊(이제)를 恨(한)하노라 주려 주글진들 採薇(채미)도 하노것가 비록애 푸새엿 거신들 기 뉘 짜회 낫드니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백이와 숙제를 한탄한다. 차라리 굶주려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뜯어먹어서야 되겠는가? 비록 산에 자라는 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는가?	주제 지조와 절개 작가 성삼문
16	이 몸이 죽어가서 무어시 될고 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 장송 되야 이서 백설이 만견곤흔 제 독야청청 하리라	이 몸이 죽어서는 무엇이 될 것인가 하면, 신선이 살고 있다는 봉래산 가장 높은 봉우리에 싱싱하게 자라난 큰 소 나무가 되었다가, 흰 눈이 온 누리를 덮을 때도 나만은 푸르디푸른 빛을 보여 주리라.	주제 지조와 절개 작가 성삼문

병자호란 - 悲憤慷慨(비분강개)

번호	본문	현대어 풀이	핵심정리
17	가노라 三角山(삼각산)아 다시 보자 漢江水(한강수) 야 故國山川(고국 산천)을 찌누고자 恨라마는 時節(시절)이 하 殊常(수상)하니 울동말동 恨여라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물아! 고국 산천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시절이 하도 뒤숭숭하니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주제 고국을 떠나는 슬픔 작가 김상헌
18	풍설 석거친 날에 못노라 北來使者(북래사자)야 小海容顏(소해용안)이 언제나 치오신고 故國(고국)의 못 죽는 孤臣(고신)이 눈물겨워 恨노라	바람과 서리가 뒤섞여 내리는 날에 못노라. 심양에서 온 사신이며 (볼모로 잡혀간) 우리 왕자님들이 얼마나 추워하시는지? 고국에서 죽지도 못하고 살아 있는 외로운 신하는 눈물겨워 하노라.	주제 국치에 대한 비분강개 작가 이정환
19	문노라 먹라수야 굴원이 어찌 죽다터니 참소에 더럽힌 몸 죽어 문힐 땅이 없어 청과에 골육을 씻어 고기 뱃속에 가추니라.	먹라수야, 굴원이 어찌 죽었다 하느냐. 참소에 더럽힌 몸 죽어 문힐 땅이 없어 푸른 물결에 빠져 살을 빼서 고기 뱃속에 장사지내었다.	주제 청나라에 대한 원한, 설욕의 다짐. 작가 성충

우국(憂國) · 연군지정(戀君之情) · 무인의 기개 · 유배

번호	본문	현대어 풀이	핵심정리
20	구름이 無心(무심)튼 말이 아마도 虛浪(허랑)하다 中天(중천)에 쏘여서 任意(임의)로 돈니면서 구렁이 光明(광명)한 날빛을 쏘라가며 덮느니	구름이 사심(邪心)이 없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다. 하늘에 높이 떠 있어(떠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구태여 밝은 햇빛(임금의 은총)을 따라가며 덮느냐?	주제 신분의 횡포 풍자 작가 이준오
21	風霜(풍상)이 섰거친 날의 又피은 黃菊花(황국화)를 金盆(금분)에 가득 담아 玉堂(옥당)의 보닛오니 桃李(도리)야 곳인 체 마라 님의 뜻을 알패라	바람과 서리가 뒤섞이어 내린 날에 갓 핀 노란 국화를 좋은 화분에 가득 담아 홍문관에 보내시니, 복사꽃 자두꽃아 너희들은 꽃인 체 마라 (서릿발을 이겨 피는 국화를 보내신) 임금님의 뜻을 알겠구나.	주제 군은과 충절 다짐 작가 송순
22	올히 달은 다리 학기 다리 되도록에 거른 가마귀 해오라비 되도록에 享福無疆(향복무강)하샤 억만세를 누리쇼셔.	오리의 짧은 다리가 학의 다리처럼 길어지고, 검은 까마귀가 백로처럼 희게 될 때까지 복을 누리며 억만년까지 오래도록 사시옵소서.	주제 임금의 만수무강 기원 작가 김구

23	三冬(삼동)에 뱀뿔 넓고 巖穴(암혈)에 눈비 마자 구름 낀 벗뉘도 썬 적이 업건마는 西山(서산)에 히지다 흐니 눈물겨워 흐노라	겨울에 배로 지은 옷 입고, 바위굴에서 눈비를 맞고 있으며(은거) 구름 사이에 비취는 햇볕(임금의 은혜)도 썬 적이 없지만 서산에 해가 졌다(임금께서 승하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눈물이 난다.	주제 임금의 승하 애도 작가 김응정
24	엇그제 버힌 술이 落落長松(낙락장송) 아니런가 적은 덧 두던들 棟樑材(동량재) 되리러니 어즈버 明堂(명당)이 기울면 어느 남기 바티라	엇그제 잘라버린 소나무는 우뚝 솟은 큰 소나무가 아니었던가. 잠시만 두었다면 큰 대들보감이 되었을 텐데. (아깝게도 베어 버렸구나) 아! 궁전이 기울면 어느 나무로 대들보를 삼을까?	주제 충신의 죽음 애도와 우국 작가 김인후
25	넋ㅁ에 히오라비 므스일 서잇는다 무심흔 저 고기를 여어 므슴 흐려는다 아마도 혼믈에 잇거니 니저신들 엇드리	넋가에 서 있는 백로야! 무슨 일로 서 있느냐? 사심없이 노니는 저 고기를 엿보아서 무엇하러 하느냐? 아마도 한 물에 살고 있으니, 아예 잊어버리고 내버려두는 것이 어떠리?	주제 당쟁에 대한 경계 작가 신희
26	朔風(삭풍)은 나무 굵기 불고 明月(명월)은 눈 속에 춘디 萬里邊城(만리 변성)에 一長劍(일장검) 집고 서서 긴 폭담 큰 혼 소리에 거칠 거시 업세라	몰아치는 북풍은 나뭇가지를 스치고 밝은 달은 눈 속에 찬데,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국경) 성루에서 긴 칼을 짊고 서서, 휘파람 불어치며 큰 소리로 호통을 치니, 감히 대적하는 것이 없구나.	주제 무인의 호방한 기개 작가 김종서
27	長劍(장검)을 싸혀 들고 백두산에 올라보니 大明天地(대명천지)에 腥塵(성진)이 좀겨세라 언제나 南北風塵(남북풍진)을 헤쳐불고 흐노라.	긴 칼을 빼어들고 백두산에 올라 보니 밝고 맑은 천지에 전쟁 기운이 덮여 있구나. 언제나 남북에서 자주 일어나는 싸움을 평정하여 세상일을 바로잡을까.	주제 무인의 호방한 기개 작가 남이
28	한산섬 달 밝근 밤의 戌樓(수루)에 혼자 안자 큰 칼 녀피 차고 기른 시름 흐는적의 어디서 一聲胡笳(일성 호가)는 놈의 익를 굶느니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외로이 앉아 (망을 보면서) 큰 칼을 옆에 차고 깊은 근심에 잠겨 있을 즈음, 어디서 한 곡조의 호가 소리가 남의 창자를 끊어 놓으려 하느냐?	주제 우국충정 작가 이순신
29	국화야 너는 어찌 三月春風(삼월 춘풍) 다 보내고 落木寒天(낙목 한천)에 네 홀노 피엿는다 아마도 傲霜孤節(오상 고절)은 너뿐인가 흐노라	국화야 너는 어찌 (만물을 생동케 하는) 봄이 다 지난 뒤, 나뭇잎이 지고 추워진 계절에 홀로 피었느냐? 아마도 찬 서리를 이겨내는 높은 절개는 너밖에 없는 것 같구나.	주제 지조와 절개 작가 이정보

30	철령 노픈 봉에 쉬여 넘는 저 구름아 고신(孤臣)의 冤淚(원루)를 비사마 썩여다가 님 계신 구중 심처에 뿌려 본들 엇드리	철령 높은 봉우리를 단숨에 넘지 못하고, 쉬었다가 넘는 저 구름아! 귀양길에 오르는 외로운 신하의 서러움이 맺힌 눈물을 비 대신 띄워다가 임금이 계신 깊은 대궐 안에 뿌리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주제 억울한 심정 호소 / 귀양길에 서의 정한(情恨). 작가 이항복
31	님이 헐오시리 나는 전혀 밋밋더니 날 사랑하든 정을 뉘손디 움기신고. 처음에 뵈시든 거시면 이디도록 설울까.	임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매 나는 임을 아주 믿었었는데 나를 사랑하시던 정을 누구에게 옮기셨는가? 처음부터 나를 미워하시던 것이라면 이토록 서러울까?	주제 이별의 슬픔 작가 송시열
32	꿈에 돈이는 길이 죽최곳 나랑이면 님의 집 窓(창) 빛이 石路(석로) 라도 달으련마는 꿈길이 죽최 업스니 그를 슬허호노라	꿈에 다니는 길이 만일 자취가 난다고 할 것 같으면, 임의 집 창 밖의 길이 비록 돌길이라도 닳아 없어졌건만, 꿈속에 다니는 길은 자취가 없으니 그것을 슬퍼하노라.	주제 간절한 그리움 작가 이명환
33	님 글인 相思夢(상사몽)이 실솔의 녀시 되야 秋夜長(추야장) 깃픈 밤에 님의 방에 드렀다가 날 닳고 깃히 든 즈름 썩와 불가 호노라.	임을 그리워하는 사랑의 꿈이 귀뚜라미의 녀이 되어 가을의 기나긴 깊은 밤에 임의 방을 찾아 들어 나를 잊고 깊이 잠든 임을 깨워 볼까 하노라.	주제 간절한 그리움 작가 박효관
34	슬프나 즐거오나 울타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울 일만 닳고닳을 뿐이언정 그 빛과 너나쁜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틀리다 하나 내 몸이 할 일만 닳고 닳을 뿐이지 그 밖의 나머지 일이야 분별할 줄 있으랴	주제 신념에 따른 삶 작가 윤선도
35	내 일 망녕된 줄 내라 하여 모를 손가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다 아뵈 아무리 일러도 님이 해여 보소서	내 일 망녕된 줄을 나라 하여 모르겠는가 이 마음 어리석기도 임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말해도 임이 생각해 보소서	주제 결백의 하소연 작가 이명환
36	개야미 불개야미 준등부러진 불개야미, 앞발 정중 나고 뒷발 종귀 난 불개야미, 광릉 십재너머 드러 가람의 허리를 그르 무려 추혀 들고 북 해를 건너닷 말이 이셔이다 님아님야. 온 놈이 온 말을 호여도 님이 짐작호소서	개미 불개미, 잔등 부러진 불개미, 앞발에 종기 나고 뒷발에 종기 난 불 개미, 광릉 샘고개 넘어 들어가 호랑이의 허리를 가로 물어 추켜 들고, 북해를 건넌다는 말이 있습니다. 임이여, 모든 사람이 백 가지 말을 해도 임이 짐작하소서.	주제 결백의 하소연 작가 작자 미상

☞ 한가로운 삶 - 江湖歌辭(강호한정), 自然親和(자연친화), 物我一體(물아일체), 安分知足(안분지족)

번호	본문	현대어 풀이	핵심정리
37	대초볼 불근 골에 밤은 어이 쫓드르며, 벼 뵈 그르헤 게논 어이 느리노고, 술 너자 체 장스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대추가 발갈게 익은 골짜기에 밤까지 익어 똑똑 떨어지며, 벼를 뵈 그루에 게까지 어찌 나와 다니는가? 술이 익자 체장수가 체를 팔고 돌아가니, 술을 먹지 않고 어찌리.	주제 농촌생활의 풍요로움 작가 황희
38	재너머 성권룡 집의 술낙땀 말 어제 듯고 누은 쇼 발로 박차 언치 노하 지즐테고 아희야 네 권룡 겨시냐 덩좌수(鄭座首) 왔다 허여라	고개 너머에 살고 있는 성권룡의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을 어제 듣고서 누워 있는 쇼 발로 차서 일으켜 세워 언치만 놓아 경충 놀러 타고 여봐라, 너의 권농 어른 계시냐? 정좌수가 왔다고 아뢰어라.	주제 전원생활의 멋과 풍류 작가 정철
39	초암이 적료흔티 벗 업시 혼자 안즈 평조 한넉이 백운이 절로 존다 언의 뉘 이 죠흔 뜻을 알 리 잇다 허리오	초가 암자가 고요한데 찾아 온 벗 하나 없이 홀로 앉아 평조의 노래 한 잎을 읊으니 흰 구름이 졸고 있는 것 같다. 어느 누가 이 좋은 뜻을 알아 줄 이 있다 하겠는가?	주제 자연을 벗삼아 부르는 풍류 작가 김수장
40	秋江(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충노미라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미라 무심한 달빛만 싹고 뵈 벅 저어 오노미라	가을 강에 밤이 되니 물결이 차구나 낙싯대를 드리우니 고기 아니 무는구나. 무심한 달빛만 가득 싹고 빈 배 저어 오노라.	주제 자연 속에서의 풍류 작가 월산대군
41	말 업슨 靑山(청산)이요 態(태) 업슨 流水(유수) 로다 값 업슨 淸風(청풍)이요 임즈 업슨 明月(명월)이로다 이 中(중)에 病(병)업슨 이 몸이 分別(분별) 업시 늙으리라	말이 없는 청산(靑山)이요, 모양 없이 흐르는 유수(流水)로다. 값 없는 것은 바람이요, 주인 없는 것은 밝은 달빛이라. 이 아름다운 자연에 묻혀 사는 병 없는 이 몸은 걱정 없이 늙으리라.	주제 안빈낙도 작가 성혼
42	十年(십 년)을 經營(경영)허여 초려 삼간 지어내니 나 혼 간 돌 혼 간에 淸風(청풍) 혼 간 맞져 두고 江山(강산)은 들일 티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십 년이나 기초를 닦아서 보잘것없는 초가집을 지어내니, 달 한 간과 맑은 바람도 한 간을 맡겨 두고, 청산과 맑은 강은 들여놓을 곳이 없으니 주위에다 두고 보리라.	주제 자연친화 작가 송순
43	집방석 너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안즈라 술불 혀지 마라 어제 진 달 도다 온다 아희야 박주산채만정 엇다말고 내여라	짚으로 만든 방석을 내지 말아라. 떨어진 나뭇잎엔들 알지 못하겠느냐. 관술불을 켜지 말아라. 어제 져던 밝은 달이 돌아온다 얘야! 변변치 않은 술과 나물일지라도 좋으니 엇다 말고 내 오너라.	주제 안빈낙도 작가 한호
44	頭流山(두류산) 兩端水(양단수)를 네 듯고 이제 보니, 桃花(도화) 쓴 맑은 물에 山影(산영)조긔 잠겨세라. 아희야, 武陵(무릉)이 어디오 나는 옌가 허노라.	지리산의 명승인 양단수를 지난날 얘기로만 듣고서 이제 와 처음 보니, 복숭아꽃이 떠내려 가는 맑은 냇물에는 산그림자마저 어리어 있구나. 얘야, 무릉도원이 어디냐?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	주제 자연친화 작가 조식

45	전원(田園)에 나른 흥(興)을 전나귀에 모도 짓고 계산(溪山) 나그네 길로 흥치며 도라와서 아희야 금서(琴書)를 다스려라 나른 희를 보내리라.	전원에 남은 흥취를 다리를 저는 나귀에 모두 싣고서, 계곡을 끼고 있는 산 익숙한 길로 흥겨워하며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이야, 거문고와 서책을 다스려라, 남은 해를 보내리라.	주제 자연 속에서의 풍류 작가 김천택
46	강산 조흔 경(景)을 힘센 이 닳뜰 양이면, 넉 힘과 넉 분(分)으로 어이하여 엇들손이 진실로 금(禁)히려 업쓸씩 나도 두고 논이노라.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힘이 센 사람들이 다툼다고 치면, 나같이 약한 힘과 가난한 분수로 어찌 차지할 수가 있을 것인가? 진실로 막는 사람이 없으므로 나 같은 사람도 마음 즐기며 노니노라.	주제 자연 속에서의 풍류 작가 김천택
47	미암이 밭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우니 山菜(산채)를 밭다는가 薄酒(박주)를 쓰다는가 우리는 草野(초야)에 못쳐서니 밭고 쓴 줄 몰너라	매미 맵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우니 산나물이 맵다고 하는가? 술이 쓰다고 하는가? 우리는 산과 들에 묻혀 살고 있으니 맵고 쓴 줄을 모르겠노라.	주제 초야에 묻혀 사는 즐거움 작가 이정진
48	山村(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못쳐세라 柴扉(시비)를 여지 마라 날 츠즈리 뉘 이스리 밤중만 一片明月(일편 명월)이 괴 벗인가 호노라	산골 마을에 눈이 내리니 돌길이 묻혔구나! 사립문을 열지 마라. 나를 찾아올 손님이 누가 있겠느냐? 다만 밤중에 찾아드는 한 조각 밝은 달만이 내 벗인가 싶구나.	주제 자연친화 작가 신흠
49	청산도 절노절노 綠水(녹수) 라도 절노절노 산 절노절노 수(水) 절노절노 산수간에 나도 절노절노 그 중에 절노 죽된 몸이 늙기도 절노절노 늙느리라	푸른 산도 자연 그대로이며 흐르는 맑은 물도 자연 그대로라. 산과 물이 모두 자연의 뜻을 따르니 나도 자연 그대로이다. 자연 속에서 절로 자란 몸이니 늙어 가는 것도 자연의 순리대로 하리라.	주제 자연친화 작가 송시열
50	龔巖(농암)에 올라 보니 老眼(노안)이 猶明(유명)이로다 人事(인사)이 變(변)흔들 山川(산천)이 켜 가실가 巖前(암전)에 某水某丘(모수모구)이 어제 본 듯 호예라	물가의 바위에 올라 사면을 바라보니 늙은이의 눈이 오히려 밝아진다.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변함이 있지만 자연이야 변할 리 있겠는가. 바위 앞의 이름 모를 물과 언덕은 어제 본 바와 같구나.	주제 자연귀의 작가 이현보
51	백구야 말 무려 보자 놀나지 말아스라 各區勝地(명구승지)를 어디어디 보았느냐 날드려 仔細(자세)히 일러든 너와 게 가 놀니라	갈매기야 말 물어보자 놀라지 말려무나 산수 경치 좋기로 이름난 곳을 어디 보았느냐. 나에게 자세히 말해 주면 너와 거기 가 같이 놀리라.	주제 자연친화 작가 김천택
52	산수간 바회아래 뽕집을 짓노라호니 그 물론 늙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향암의 뽕집은 내 분인가 호노라	자연 속 바위 아래 초가를 짓노라 하니 (그 뜻을) 모르는 늙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뜻은 내 분수인가 하노라	주제 자연에 은거 작가 윤선도
53	蓮(연)넙히 밥싸두고 飯饌(반찬)으란 장만마라 靑蕒笠(청약립)은 써잇노라 絲蓑衣(녹사의)를 가져오나 엇더타 無心(무심)흔 白鷗(백구)는 간 곳마다 좇닌다	연 앞에 밥 싸 두고 반찬은 장만하지 마라 삿갓은 쓰고 있노라 도롱이를 가져왔느냐 어찌하여 무심한 갈매기는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는가	주제 안분지족, 물아일체 작가 윤선도

☞ 사랑 · 이별 · 獨守空房(독수공방)

번호	본문	현대어 풀이	핵심정리
54	冬至(동지)스들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春風(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동짓달 긴긴 밤의 한 허리를 베어 내어, 봄바람 따뜻한 이불 속에 서리서리 넣어 두었다가, 정든 임이 오신 밤이면 굵이굵이 펼쳐 그 밤이 오래오래 보내리라.	주제 임에 대한 사랑 작가 황진이
55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드냐, 이시라 헛더면 가랴마는 제 구퉁야, 보너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헛노라.	아! 내가 한 일이 후회스럽구나. 이렇게도 그리울 줄을 몰랐더냐? 있으라 했더라면 굳이 떠나시려 했겠느냐마는 내가 굳이 보내 놓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도 모르겠구나.	주제 이별의 정한 작가 황진이
56	靑山(청산)은 내뜻이오 綠水(녹수)는 님의 情(정)이 綠水(녹수) 흘러간들 靑山(청산)이야 변홀손가 綠水(녹수)도 靑山(청산)을 못니져 우리예어 가느고	청산은 변함없는 내 마음이고 흐르는 푸른 시냇물은 임의 정이다. 물이야 흘러가더라도 산이야 변할 수 있으랴. 흐르는 물도 자기가 놓던 청산이 그리워 울면서 흘러가는구나.	주제 임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 작가 황진이
57	산은 냇 산이로되 물은 냇 물이 안이로다 晝夜(주야)에 흐르거든 냇 물이 이실쏘냐 人傑(인걸)도 물과 ㄱㅇ야 가고 안이 오노리라	산은 옛날의 산 그대로인데 물은 옛날의 물이 아니구나. 종일토록 흐르니 옛날의 물이 그대로 있겠는가. 사람도 물과 같아서 가고 아니 오는구나.	주제 무정한 임에 대한 그리움 작가 황진이
58	靑山裏(청산리) 碧溪水(벽계수)ㅣ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一到滄海(일도 창해)헛면 다시 오기 어려오니 明月(명월)이 滿空山(만공산)헛니 수여간들 엇더리	청산 속에 흐르는 푸른 시냇물(중의적)아, 빨리 흘러간다고 자랑 마라. 한번 넓은 바다에 다다르면 다시 청산으로 돌아오기 어려우니 밝은 달(황진이)이 산에 가득 차 있으니 쉬어 감이 어떠냐?	주제 향락과 사랑 권유 작가 황진이
59	ㅁ음이 어린 後(후)ㅣ니 헛는 일이 다 어리다. 萬重雲山(만중 운산)에 어너님 오리마는, 지느 님 부는 바람에 행혀 권가 헛노라.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마다 모두 어리석다. 겹겹이 구름 낀 산중이니 임이 올 리 없건마는 떨어지는 잎과 부는 바람 소리에도 행여나 임인가 하고 생각한다.	주제 간절한 그리움 작가 서경덕
60	내 언제 신이 업서 님을 언제 소켓관디 월침삼경에 온 뜻이 전혀 업너 추풍의 디느 님 소리야 낸들 어이 헛리오.	내가 언제 믿음이 없어서 임을 언제 속였기에 달이 잠든 한밤중이 되도록 임이 나를 찾을 뜻이 전혀 없네.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야 낸들 어찌 하겠는가?	주제 임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 작가 황진이
61	靑草(청초) 우거진 골에 자느다 누엇느다 紅顏(홍안)을 어디 두고 白骨(백골)만 무쳤느이 蠹(잔) 자바 권헛리 업스니 그를 슬허헛노라	푸른 풀만 우거진 무덤에서 (그대는) 자고 있느냐, 누워 있느냐. 그 굵고 아름답던 얼굴은 어디 두고 백골만 여기에 묻혀 있단 말이나. 잔을 잡아 술 권해 줄 사람이 없으니 그것을 슬퍼하노라.	주제 황진이의 죽음 애도 작가 임제

62	뿔버들 갈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뼉, 자시는 창(창) 밧기 심거 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넙곳 나가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산에 있는 버들가지를 아름다운 것을 골라 꺾어 임에게 보내오니, 주무시는 방의 창문가에 심어두고 살펴 주십시오. 행여 밤비에 새 잎이라도 나가들랑 마치 나를 본 것처럼 여기소서.	주제 임에 대한 사랑 작가 홍랑
63	梨花雨(이화우) 훗썩릴 제 울며 좁고 이별흔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라	배꽃이 흠날리던 무렵에 손잡고 울며불며 하다가 헤어진 임, 가을 바람에 낙엽 지는 가을이 되었으니, 님도 나를 생각하여 주실까? 천 리 길 머나먼 곳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주제 간절한 그리움 작가 계랑
64	북창이 몹다커늘 우장 업시 길을 난이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춘비로다 오늘은 춘비 맞았시니 얼어 잘까 하노라	북녘 창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다기에 우장도 안 가지고 길을 떠났더니, 산에서는 눈이 어리고, 들에서는 찬비가 내리는구나. 이래저래 오늘은 찬비를 맞았으니, 할 수 없이 언 몸으로 잘까 하노라.	주제 사랑을 구하는 마음 작가 임제
65	어이 얼어 잘이 므스 일 얼어 잘이 원앙침(鴛鴦枕) 비취금(翡翠衾) 어디 두고 얼어 잘이 오늘은 춘비 맞았시니 녹아 잘까 하노라.	어찌 얼어 자겠는가? 무슨 일로 얼어 자겠는가? 원앙새 수놓은 베개와 비취색 이불 어디 두고서, 얼어 자려 하시나이까? 오늘은 (그대가) 찬 비를 맞고 오셨으니 몸을 녹여 가며 자려 하나이다.	주제 사랑에 대한 허락 작가 한우
66	님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 지어 먹고 中門(중문) 나서 大門(대문) 나가 地方(지방) 우회 치드라 안자 以手(이수)로 加額(가액)하고 오논가 가논가 건넌 山(산) 바라보니 거머헛들 서 잇거늘 저야 님이로다. 보선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곱비님의 님비곱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즈디 므른디 굴희 지 말고 위령충창 건너가서 情(정)옛말 하려 하고 것눈을 흘깃 보니 上年(상년) 七月(칠월) 사흔날 굴가벽긴 주추리 삼대 술 드리도 날 소겨다. 모쳐라 밤일식 망정 형허 닳이런들 늙 우일 번하패라.	님이 오겠다고 하기에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을 나와서 대문으로 나가, 문지방 위에 올라가서 손을 이마에 대고 임이 오는가 하여 건넌산을 바라보니 거머헛똑한 것이 서 있기에 저것이 틀림없는 임이로구나.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을 벗어 손에 쥐고, 앞치락뒤치락 하둥거리며 진 곳, 마 른 곳 가리지 않고 우당탕탕 건너가서 정이 넘치는 말을 하려고 결눈으 로 흘깃 보니, 작년 7월 3일 날 껌질을 벗긴 주추리 삼대(그냥 발머리에 세워 둔 삼의 줄기)가 알뜰하게도 나를 속였구나. 마침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 닳아있었다면 남 웃길 뻔했구나.	주제 임에 대한 기다림 작가 미상
67	꿇도리 저 꿇도리 예엿브다 저 꿇도리 어인 꿇도리 지는 달 새는 밤의 긴 소리 차른 소리 절절이 슬픈 소리 제 혼자 우러 네어 紗窓(사창) 여윈 잠을 슬드리도 썩오논고야 두어라 제 비 록 微物(미물)이나 無人洞房(무인동방)에 내 뜻 알리는 저 뿐 인가 하노라	귀뚜리 저 귀뚜리 불쌍하다 저 귀뚜리 어인 귀뚜리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이 슬픈 소리 저 혼자 울어 사창(여인네들 방의 창) 여윈 잠을 살뜰이도 깨우는구나 두어라 제 비록 미물이나 아무도 없는 방 에 내 뜻 알 이는 저 뿐인가 하노라	주제 독수공방의 외로움 작가 미상

☞ 인생 교훈 · 정치 풍자

번호	본문	현대어 풀이	핵심정리
68	盤中(반중) 早紅(조홍)감이 고아도 보이느다 柚子(유자) 안이라도 품엄죽도 하다마는 품어 가 반기리 업슬식 글노 설워 하느이다	소반 위에 놓인 홍시가 매우 곱게도 보인다. 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몸에 품고 돌아갈 만도 하다마는, 품어 가도 반가워해 주실 분이 없으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서러워합니다.	주제 효를 다하지 못한 슬픔 작가 박인로
69	뉘라셔 그마귀를 검고 흥트 하닷던고. 반포보은(反哺報恩)이 귀 아니 아름다운가. 스람이 더 식만 못함을 못느 슬허하노라.	누가 까마귀를 검고 흥하다고 했는가? 반포보은 그것이 아름답지 않은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주제 어버이에 대한 효도 작가 박효관
70	아바님 날 나호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두분곳 아니시면 이몸이 사라질가 하늘 그튼 그업슨 恩德(은덕)을 어딴다혀 갑스오리	아버님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 나를 기르시니 두 분 아니면 이 몸이 살아 있을까 하늘 같은 끝없는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주제 어버이에 대한 효도 작가 정철
71	어버이 사라신제 섬길일란 다하여라라 디나간 후면 애롭다 엇디하리 平生(평생)애 고틀 못홀일이 잇뿐인가 하노라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한들 어찌하리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주제 어버이에 대한 효도 작가 정철
72	이고진 더 늘그니 짐프러 나를 주오 나는 점엇찌니 돌히라 무거울가 늘거도 설웨라커든 짐을 조차 지실가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는데 돌이라고 무거울까 늙은 것도 서러운데 짐까지 지실까	주제 웃어른에 대한 공경 작가 정철
73	내히 도타 하고 늬 슬흔 일 하지 말며, 늬이 혼다 하고 의(義) 아니면 좇지 말니. 우리도 천성(天性)을 직회여 삼긴 덕로 하리라.	나에게 좋다 하여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 것이요 남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거든 따라 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타고난 착한 성품을 따라서 저마다 생긴 그대로 지내리라.	주제 의(義)에 따라 살려는 의지 작가 변계량
74	먹을 사름들아 올흔일 하자스라 사름이 되어 나서 올치웃 못하면 먹쇼를 갓갓갈 씹워 밥먹이나 다르라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구나 사람이 되어 나서 옳지 못하면 마소를 갓과 고깔 씹워 밥 먹이는 것과 다르라	주제 의(義)에 따라 살려는 의지 작가 정철
75	쫄은 들는 대로 듯고 벗은 쫄 대로 쫄다. 청풍의 옷깃 열고 긴 폭포 흘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이 아는 듯이 머무는고	땀은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별은 쫄 대로 쫄다. 맑은 바람에 옷깃을 열고 쉬면서 긴 휘파람을 멋들어지게 불 때, 어디서 길 가던 손님이 아는 듯이 발걸음을 멈추는가.	주제 농부의 즐거운 삶 작가 위백규
76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오 가자스라 내논 다 먹여든 네논점 먹여주마 울길히 뽕따다가 누에먹켜 보자스라	오늘도 다 새었구나 호미 메고 가자구나 내 논 다 매거든 네 논도 매어주마 오는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구나	주제 근면한 삶 작가 정철

77	비오네티 들뢰 가랴 사립 닛고 쇼머겨라 마히 뵤양이라 잠기 연장 다스려라 쉬다가 개날 보아 스래긴 밧 가라라	비 오는데 구태여 들에 나가겠느냐 사립문을 닫고 소에게 여물 먹여라. 장마가 언제나 이렇듯 계속되겠느냐, 쟁기와 연장들이나 손질하여라. 쉬다가 날씨가 맑아지는 날 보아서 이랑이긴 밧을 갈아라.	주제 근면한 삶 작가 윤선도
78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지거든 돌아가자. 계변(溪邊)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제 어디서 우배초적(牛背草笛)이 함께 가자 재촉하는고.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지거든 돌아가자. 시냇가에 손발을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때 어디서 소를 타고 가면서 피리 소리가 함께 가자고 재촉하는가.	주제 농사일을 끝낸 흥겨움 작가 위백규
79	동창(東窓)이 붉았는야 노고지리 우지진다. 쇼 칠 아회는 옛태 안이 닐엇는야. 재넘어 슬래 긴 밧출 언제 갈려 혼은이.	동쪽 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짚는다. 소 먹일 이는 여태 일어나지 않았느냐? 재 너머의 사래 긴 밧을 언제 갈려 하느냐?	주제 부지런한 농촌 생활 작가 남구만
80	功名(공명)을 즐겨마라 榮辱(영욕)이 半이로다 富貴(부귀)를 貪(탐)치 마라 위기를 밟느니라 우리는 一身(일신)이 한가커니 두려운 일 업세라	공을 세워 이름 드날림을 좋아하지 말아라. 영화와 욕됨이 반반이로다. 재물과 몸이 귀해짐을 탐내지 마라. 반드시 위기를 겪게 되는 법이다. 우리는 (공명과 부귀를 멀리 했으니) 한가로워 겁낼 일이 없도다.	주제 공명의 경계 작가 김삼현
81	굶병이 매암이 되야 느래 도쳐 느라 올라 노프나 노픈 남게 소리는 죠커니와, 그 우회 거미줄 이시니 그를 조심하여라.	굶병이가 매미가 되어 날개가 돌아서 날아 올라, 높고 높은 나무 위에서 우는 소리는 졸지마는 그 위에 거미줄이 있으니 그것을 조심하여라.	주제 벼슬길의 험난함 경계 작가 미상
82	나무도 병이 드니 덩즈라도 쉬리 업다. 호화이 셔신 제는 오리 가리 다 쉬더니, 넙디고 가지 꺾근 후는 새도 아니 안는다.	나무도 병이 들면, 정자나무라도 (그 밑에서) 쉴 사람이 없구나. 나무가 무성하여 호화롭게 서 있을 때에는 오고가는 이들이 다 쉬더니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꺾인 후에는 새마저도 앉지 않는구나.	주제 염량세태 현실 풍자 작가 정철
83	감장새 작다 흥고 대붕(大鵬)아 웃지 마라. 구만리 장천을 너도 날고 저도 난다. 두어라 일반비조(一般飛鳥)ㅣ 니 네오 귀오 다르라.	굴뚝새 작다고 대붕아 비웃지 마라. 머나먼 하늘을 너도 날고 저도 난다. 두어라, 다 같은 날새이니 너나 그나 다를까.	주제 평등의 본질 작가 이택
84	하하 허허 흥들 내 우음이 정 우음가 하 어척 업서서 늦기다가 그리 되게 벗님네 웃디를 말구려 아귀 씹여디리라.	하하 허허 하고 있다고 내 웃음이 정말 웃음인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울다가 그리 웃네. 사람들아 웃지를 말구려. 아귀가 씹어질지 모르네.	주제 잘못된 정치에 대한 풍자 작가 권섭
85	백사장(白沙場) 흥료변(紅蓼邊)에 굶니러 먹는 저 빅노야. 흔 님에 두셋 물고 무어 낫싸 굶느니라. 우리도 구복(口腹)이 웬슈라 굶니러 먹네.	백사장 붉은 여뀌 언저리에서 굶실거리며 먹는 저 백로야. 한 입에 물고기 두셋 물고도 무엇이 모자라 굶실거리느냐. 우리도 입과 배가 원수라 굶실거리며 먹네.	주제 인간의 욕심에 대한 경계 작가 미상

☞ 삶의 시름

번호	본문	현대어 풀이	핵심정리
86	梨花(이화)에 月白(월백)하고 銀漢(은한)이 三更(삼경)인 제, 一枝春心(일지 춘심)을 子規(자규)야 아라마는, 多情(다정)도 병인 양하야, 줌 못 드러 호노라.	배꽃에 달은 환히 비치고 은하수는 돌아서 자정을 알리는 때에, 배꽃 한 가지에 어린 봄날의 정서를 자규가 알고 저리 우는 것일까마는 다정다감(多情多感)한 나는 그것이 병인 양, 잠을 이루지 못하여 호노라.	주제 봄밤에 느끼는 애상감 작가 이조년
87	池塘(지당)에 비췌리고 楊柳(양류)에 너끼인제 沙工(사공)은 어디 가고 빈 비만 댕겼는고 夕陽(석양)에 짝 일흔 굴미기는 오라가락 호노매	연못에는 비가 내리며 버들가지에는 물안개가 서리었는데, 벧사공은 어디를 갔기에 빈 배만 매여 있는가? 해질 무렵에 짝을 잃은 갈매기는 오라가락하는구나.	주제 외로움 작가 조현
88	오동(梧桐)에 뚝는 빗발 무심(無心)히 뚝건마는 나의 시름 하니 뚝뚝히 수성(愁聲)이로다. 이 후(後)야 입 넓은 남기야 시물 줄이 이시랴.	오동나무에 떨어지는 빗발은 무심히 떨어지는 것이지만, 내가 시름이 많으니 나뭇잎들이 모두 근심 소리를 내는 것 같도다. 이제부터 잎사귀 넓은 나무는 심지 않겠노라.	주제 삶의 시름과 고뇌 작가 김상용
89	이시럼 브디 갈짜 아니 가든 못홀쏬냐 무단이 슬튼야 늑의 말을 드렸는야 그러도 하 애도래라 가는 뜻을 닐러라	있으려무나. 부디 (꼭) 가겠느냐? 아니 가지는 못하겠느냐? 공연히 (내가) 싫어졌느냐? 남의 권하는 말을 들었느냐? 그래도 (오히려) 너무 애타는구나. 가는 뜻이나 분명히 말해 보려무나.	주제 신하를 떠나보내는 안타까움 작가 성종
90	동기로 세 몸되어 한 몸같이 지내다가 두 아운 어디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고 날마다 석양(夕陽) 문외(門外)에 한숨겨워 호노라.	같은 기운으로 태어나 세 몸이 한 몸같이 우애 있게 지내다가, 두 아우는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가. 날마다 해 지는 문 밖에 서서 한숨을 못 이기노라.	주제 아우들과 이별의 슬픔 작가 박인로
91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홀샤. 닐러 다 못 닐러 불러나 푸듯던가. 진실(眞實)로 풀릴 거시면은 나도 불러 보리라.	노래를 만든 사람이 시름이 많기도 많구나. 일러도 다 못 닐러 불러서 풀었던가. 진정 풀릴 것 같으면 나도 불러 보리라.	주제 노래를 통한 시름 해소 작가 신희

☞ 탄로가

번호	본문	현대어 풀이	핵심정리
92	春山(춘산)에 눈 녹인 비를 건듯 불고 간 되 업다 저근 덧 비러다가 마리 우희 불니고져 귀 밋틱 희목은 서리를 녹여불가 호노라	봄 산에 쌓인 눈을 녹인 바람이 잠깐 불고 어디론가 간 곳이 없다. 잠시 동안 (그 봄바람을) 빌어다가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구나. 귀밑에 여러 해 묵은 서리[백발]를 녹여(검은머리가 되게) 불까 호노라.	주제 늙음에 대한 한탄 작가 우탁
93	흔 손에 막딤 들고 쏘 흔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딤로 치려터니 백발이 제 묻져 알고 즈름길노 오더라	한 손에 막대를 잡고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늙는 길은 가시 덩굴로 막고, 찾아오는 백발은 막대로 치려고 했더니, 백발이 (나의 속셈을) 제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주제 늙음에 대한 한탄 작가 우탁

☞ 2019년 최신 기출 시조

번호	본문	현대어 풀이	핵심정리
94	십년 ㄱ온 칼이 갑리(匣裏)에 우노미라. 관산(關山)을 바라보며 새새로 문져 보니 장부(丈夫)의 위국공훈(爲國功勳)을 어니 새에 드리울고.	10년이나 갈아온 칼이 칼집 속에서 울고 있구나. 관문을 바라보며 때때로 만져볼 뿐이니. 장부의 나라를 위한 큰 공훈을 어느 때나 청사(靑史)에 기록할까?	주제 우국지정, 무인의 결의 작가 이순신
95	구곡(九曲)은 어드미고 문산(文山)에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奇巖怪石)이 눈속에 못쳐세라. 유인(遊人)은 오지 안이하고 볼썽업다 흐드라.	아홉 번째 계곡은 어디인가? 문산에 한 해가 저무는구나 기이하게 생긴 바위와 돌이 눈 속에 묻혔구나 세상 사람들은 와보지도 않고 볼 것 없다 하더라	주제 자연친화 작가 이이 <고산구곡가 中>
96	강호(江湖)에 겨울이 드니 눈 기피 자히 남다.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침지 아니힘음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강호에 겨울이 닥치니 쌓인 눈의 깊이가 한 자가 넘는다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도롱이를 둘러 입어 덧옷을 삼으니 늙은 내가 이렇듯 추위를 모르고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다	주제 자연친화와 연군 작가 맹사성 <강호사시가 中>
97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古人) 못 뵈 고인(古人)을 못 뵈도 녀던 길 알표이 잇니 녀던 길 알표이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옛 어른도 나를 보지 못하고 나도 그들을 보지 못하네. 하지만 그들이 행하던 길은 지금도 가르침으로 남아 있네. 이렇듯 올바른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따르지 않고 어찌겠는가?	주제 연학 - 학문 탐구의 자세 작가 이황 <도산십이곡 中>
98	술은 어이하야 도흐니 누룩 섯글 타시러라 국은 어이하야 도흐니 염매(鹽梅) 툷 타시러라 이 음식 이 뜯을 알면 만수무강(萬壽無疆)흐리라	술은 어이하야 졸은가? 누룩을 섞은 탓이로다. 국은 어이하야 맛이 졸은가? 소금을 타서 간을 알맞게 한 탓이로다. 이 음식의 원리를 알면 만수무강하리라.	주제 훌륭한 정사에 대한 풍자 작가 윤선도 <초연곡 中>
99	우레긋치 소르나는 님을 번기긋치 번뜻 만나 비긋치 오락가락 구름긋치 헤어지니 흉중(胸中)에 브름긋튼 혼숨이 안기 피듯 흐여라	우레같이 소리 나는 임을 번개같이 번뜩 만나 비같이 오락가락(사랑을 주고받고) 구름같이 헤어지니 가슴 가운데 바람 같은 한숨이 안개 피듯 하는구나.	주제 사랑과 이별 작가 작자미상
100	나모도 바히 돌도 업슨 피헤 매게 쏘친 가토리 안과 대천(大川) 바다 한가운데 일천 석 시른 바에 노도 일코 닷 도 일코 농총도 근코 돛대도 겹고 치도 싸 지고 브람 부러 물 결 치고 안개 뒤섞게 즈자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나쁜디 사 면이 거머어득 저못 천 지 적막 가치노을 췌는디 수적(水賊) 만난 도사공(都沙工) 안과 엇그제 님 여현 내 안히야 엇다가 ㄱ을흐리오	나무도 돌도 전혀 없는 산에 매한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대천 바다 한가운데 일 천 석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용총(돛 대의 줄)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이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 치고, 안개 뒤섞여 잿아진 날에 갈 길은 천 리 만 리 남았는데 사면은 검어 어둑 하고, 천지 적막 사나운 파도 치는데 해적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엇그제 임 여현 내 마음이야 어디에다 비교하리요?	주제 이별로 인한 절망 작가 작자미상

이유진이 정리한 고어 100개만 알면
고전 운문 읽을 수 있다!

1. 𪛗술 - 가을
예 어느 𪛗술 이른 브르매 - 월명사, '제망매가'
2. 나리(물) - 시내(물)
예 새파른 나리여히 / 기랑이 즈시 이슈라. - 충담사, '찬기파랑가'
3. 소반(小盤) - 밥상
예 네 다리 소반위에 멀건 죽 한 그릇 - 김삿갓, '무제(無題)'
4. 바르 - 바다
예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 고려가요, '청산별곡'
5. 정지 - 부엌
예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 고려가요, '청산별곡'
6. 님빅/곰빅 - 앞/뒤
예 덕(德)으란 곰빅에 받좁고 / 복(福)으란 님빅에 받좁고 - 고려가요, '동동'
7. 즈슬 - 모습
예 늑딕 브를 즈슬 디너 나샷다. - 고려가요, '동동'
8. 즈믄 - 천 / 온 - 백
예 즈믄 힐 장존호살 약이라 받좁노이다. - 고려가요, '동동'
9. 별혜 - 벼랑
예 유월 보로매 아으 별혜 브른 빗 다호라 - 고려가요, '동동'

10. 꽃(꽃) - 꽃
예 대동강 아즐가 대동강 건너편 고즐여 - 고려가요, '서경별곡'
11. 백구 - 흰 갈매기
예 백구야 헌사하랴 못 미들손 도화 | 로다. - 송순의 시조
12. 이화 - 배꽃
예 이화우 훗썩릴 제 울며 잡고 이별흔 님 - 계랑의 시조
13. 도화 - 복숭아꽃
예 백구야 헌사하랴 못 미들손 도화 | 로다. - 송순의 시조
14. 행화 - 살구꽃
예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띄여잇고 - 정극인, '상춘곡'
15. 해오라비 - 해오라기, 하얀 백로
예 검은 까마귀 해오라비 되도록에 - 김구의 시조
16. 뵈 - 산 / 수라(궁중용어)
예 뵈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 윤선도, '견회요'
죽조반 조석 뵈 네와 𪛗티 세시는가 - 정철, '속미인곡'
17. 하얌(향암) - 시골에 살아 세상 이치를 모르는 사람
예 어리고 하얌의 뜻의는 내 분인가 호노라 - 윤선도, '만흥'
18. 소(沼) / 지당(池塘) - 연못
예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간 고기 뛰노느다 - 윤선도, '어부사시사'

19. 청약립 / 녹사의- **갓/우비** (소박한 차림)

예 청약립도 써 잇노라, 녹사의 가져오라. - 윤선도, '어부사시사'

20. 물 / 불 / 풀 - **물 / 불 / 풀**

예 풀은 어이하야 프르는 듯 누르느니 - 윤선도, '오우가'
물 그튼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인고. - 정철, '속미인곡'

21. 시비 - **사립문**

예 시비를 여지 마라, 날 츠즈리 님 이시리 - 신희의 시조

22. 실술 - **귀뚜라미**

예 님 글인 상사물이 실술이 녀시되야 - 박효관의 시조

23. 준디 - **진 곳** (위험한 곳)

예 준디 므른 디 굴히지 말고 - 사설시조

24. 사창/옥창/규방 - **여인의 창**

예 제 혼자 우러 네어 사창 여원 즘을 슬쁘리도 - 사설시조

25. 해동/계림/동이/동방 - **우리나라**

예 해동 육룡이 님르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 용비어천가 (1장)

26. 여름 - **열매**

예 곳 도쿄 여름하나니 - 용비어천가 (2장)

27. 벽계수 - **푸른 시냇물**

예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 - 황진이의 시조

28. 녀름 - **여름**

예 긴 녀름 강촌애 일마다 유심하도다 - 두보, '강촌'

29. ㄱ름(가름) - **강**

예 ㄱ름이 프르니 새 더욱 희오 - 두보, '절구'

30. 짜 - **땅**

예 하늘과 짜과는 일야에 뗏도다 - 두보, '등악양루'

31. 관산 - **국경, 관문, 요새**

예 사호멧 므리 관산 북너괴 잇느니 - 두보, '등악양루'

32. ㄱ(𪎐) - **끝**

예 ㄱ 업슨 디는 나뭇니폰 / 蕭蕭(소소)히 님리고, - 두보, '등고'

33. 축(燭) - **촛불**

예 축잡고 갓가이 사랑할 제 암향 좇츠 부동터라 - 안민영의 시조

34. 녹양(綠楊)/양류 - **버드나무**

예 녹양방초는 세우(細雨)중에 프르도다 - 정극인, '상춘곡'

35. 연하 - **안개와 노을** / 금수 - **수 놓은 비단**

예 연하 일휘는 금수를 재뻗는 듯 - 정극인, '상춘곡'

36. 혜음(暎, 햐가림) - **근심, 걱정, 시름**

예 단표누항에 핫튼 혜음 아니 하네 - 정극인, '상춘곡'

37. 남여 - **가마**

예 남여를 비야 톱고 술 아래 구븐 길로 - 정극인, '상춘곡'

38. 황운(黃雲)- 누렇게 익은 곡식

예 황운은 또 엇지 만경에 편 거지요 - 송순, '면앙정가'
cf) 바람 조친 황운(왜적) 원근에 사혀 잇고 - 박인로, '선상탄'

39. 건곤 - 하늘과 땅 (온 세상)

예 건곤이 폐색하야 백설이 혼 비친제 - 정철, '사미인곡'

40. 모침 - 초가의 처마

예 모침 비친 희를 옥누의 올리고져 - 정철, '사미인곡'

41. 놀애(놀이) - 날개

예 향 므딘 놀애로 님의 오식 올드리라 - 정철, '사미인곡'

42. 이덕 - 아양

예 이덕야 교탁야 어즈러이 흐듯편디 - 정철, '속미인곡'

43. 삼춘 - 봄

예 삼춘화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 업다 - 허난설헌, '규원가'

44. 시앗 - 첩

예 요악한 아우 동서 여우 같은 시앗년에 - 용부가

45. 침선 - 바느질

예 침선 돕는 유를 각각 명호를 정하여 벗을 삼을 새 - 규중칠우쟁론기

46. 수품 - 솜씨, 능력, 실력

예 수품제도를 나 곧 아니면 어찌 일으리오 - 규중칠우쟁론기

47. 잣 - 성

예 잣 앓 보미 풀와 나뭇분 기펏도다 - 두보, '춘망'

48. 막술(막을) - 마을

예 들근 막을 혼 고비 막술을 아나 흐르느니 - 두보, '강촌'

49. 파람 - 휘파람

예 청풍의 옷깃 열고 긴 파람 흘리 불 제 - 위백규의 시조

50. 우음 - 웃음

예 하하 허허 혼 들 내 우음이 정 우음가 - 권섭의 시조

51. 홍진(紅塵), 풍진, 진세, 인간, 인세, 사바, 하계, 차안 - 인간 세상

예 홍진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 엇더흐고 - 정극인, '상춘곡'

52. 선흐다 - 서운하다

예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흐면 아니올세라 - 고려가요, '가시리'

53. 녀다(니다, 네다) - 가다, 지내다, 살아가다

예 니를 혼디 녀가져 원을 비습노이다. - 고려가요, '동동'

54. 열다 - (육체적) 사랑하다

예 어른 님 오신 밤이어든 구뵈구뵈 퍼리라 - 황진이 시조

55. 괴다 - (정신적) 사랑하다

예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얏즉 흥가마는 - 정철, '속미인곡'

56. 버기다 - 우기다, 모함하다

예 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 정서, '정과정'

57. 방송하다 - **내보내다**, **석방하다**

예 “서대주의 착한 마음을 본받아라” 하고 인하여 **방송하니** - ‘서동지전’

58. 늦기다(느끼다) - **흐느끼다**

예 하 어척 업서서 **늦기다가** 그리 되게 - 신희의 시조

59. 이슷하다 - **비슷하다**

예 산 접동새 난 **이슷흐요이다** - 정서, ‘정과정’

60. 혀다 - (악기, 불)을 **켜다**

예 이월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스불 다호라 - 고려가요, ‘동동’

61. 어엿브다 - **불쌍하다**

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썬이로다 - 정철, ‘속미인곡’

62. 식어디여 - **사라져서**, **죽어 없어져**

예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 정철, ‘사미인곡’

63. 삼기다 - **생기다**, **태어나다**, **만들어지다**

예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 정철, ‘사미인곡’

64. 씹우다 - **꺼리다**

예 공명도 날 **씹우고**, 부귀도 날 **씹우니** - 정극인, ‘상춘곡’

65. 몰다 / 견화이다 / 마련하다 - **마름질하다**, **재단하다**

예 칼로 **몰아** 냐가, 붓으로 그려냐가 - 정극인, ‘상춘곡’

66. 여히다(여희다) - **이별하다**, **헤어지다**

예 **여희여슈물** 슬후니 새 믱스를 놀래는다 - 두보, ‘춘망’

67. 똥다(도타) - **좋다**

예 꽃 도쿄 여름 하느니 - 용비어천가

68. 좇다(조타) - **깨끗하다**

예 언의 뉘 이 **죠히** 뜻을 알리 잇다 흐리오 - 김수장의 시조

69. 현사하다 - **야단스럽다**

예 어와 조화옹이 **현사토 현사홀사** - 정철, ‘관동별곡’

70. 어리다 - **어리석다**

예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세 - 윤선도, ‘견회요’

71. 슬허하다 - **슬퍼하다**

예 스릅이 저 식만 못흐를 못넉 **슬허흐노라** - 박효관의 시조

72. 외다 - **그르다**, **잘못되다**

예 슬프거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 윤선도, ‘견회요’

73. 하다 - **많다**, **크다**

예 노래삼긴 스람 시름도 **하도할사** - 신희의 시조 cf) 흐다 - **하다**

74. 잘다 - **짧다**

예 긴 소리 **자른** 소리 절절이 슬픈 소리 - 사설시조

75. 수이 - **쉽게**

예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 - 황진이의 시조

76. 굶다 - **끓어지다**

예 노픈 듯 늑즌 듯 **그순** 듯 닛는 듯 - 송순, ‘면앙정가’

77. 낮다 - 이어지다

예 노픈 듯 늙은 듯 그슨 듯 낮는 듯 - 송순, '면앙정가'

78. 오던된 - 방정맞은

예 오던된 계성의 좁은 엇디 씨뚫던고 - 정철, '속미인곡'

79. 고두 - 머리를 조아리다

예 성진이 고두하고 울며 가로되 - 김만중, '구운몽'

80. 오마 헛다(오다헛다) - 온다고 하다

예 님이 오마 헛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 사설시조

81. 가시다 - 변하다, 바뀌다

예 님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 정몽주, '단심가'

82. 즈로 - 자주

예 구름 빗치 조타 흐나 검기를 즈로 흔다 - 윤선도, '오우가'

83. 모쳐라 - 마침

예 모쳐라 밤일미망정 형혀 낫이런들 님 우일 번 헛패라 - 사설시조

84. 고타 - 다시

예 염냥이 썰을 아라 가는 듯 고타 오니 - 정철, '사미인곡'

85. 겨근덧, 건덧 - 잠깐 사이에, 어느덧 문득

예 겨근덧 심각마라 이 시름 넋자 헛니
동풍이 건덧 부러 꺾설을 헤터 내니 - 정철, '사미인곡'

86. 슬꺅장 - 실컷

예 슬꺅장 슬자 헛니 - 정철, '속미인곡'

87. 헛마(하마) - 이미, 벌써

예 엇그제 저멋더니 헛마 어이 다 늘거니 - 허난설헌, '규원가'

88. 빗기(비겨) - 비스듬히

예 난간에 비겨서서 - 허난설헌, '규원가'

89. 유세차 - (제문 첫머리)이해의 차례는

예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 '조침문'

90. ~르세라 - ~할까 두렵다

예 선헛면 아니올세라 - 고려가요, '가시리'

91. ~손딕 - ~에게

예 날 스랑스던 情(정)을 뉘손딕 옮기신고 - 송시열'

92. ~도곤 / ~라와 / ~에 - ~보다

예 누고셔 삼공도곤 낫다 헛더니 만승이 이만헛라 - 윤선도, '만흥'
넋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 '청산별곡'

93. ~우회

1) 시간+~우회: ~전에

예 천세 우회 미리 정헛산 한수 북에 - 용비어천가

2) 공간+~우회: ~위에

예 문지방 우회 치드라 안자 - 사설시조

94. ~다히(~다이) - ~의, ~쪽

예 무등산 흔 활기 되회 동다히로 버더 이셔 - 송순, '면앙정가'

95. ~딛 - ~곳 (장소)

예 큰 딛를 드딛을세라 - 정읍사

96. ~제 - ~때 (시간)

예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 정철, '사미인곡'

97. ~쿠니와 - 물론이거나와

예 각시님 들이야 쿠니와 구즌 비나 되쇼셔 - 정철, '속미인곡'

98. ~하 - ~이시여(높임 호격조사) / ~곰 - 강세접미사

예 들하 노피곰 도드샤 /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 '정읍사'

99. ~고져 - ~하고자

예 출하리 한강의 목멱에 다히고져 - 정철, '관동별곡'

100. ~다호라 - ~갈구나

예 아으 별혜 브룬 빗 다호라 - 고려가요, '동동'